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 덫 놓고 있다”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 회동

青 상시청문회법 거부땐

2野 공동대응 나서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대상 확대를 끝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나설 경우, 앙당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대응 방침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으려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리를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조하려고 나서는 앙당을 오히려 강경으로 몰고 가는 국정 운영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에 따라서는 (더민주와) 강한 공조를 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두 앙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를 일제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이종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 포비아(공포증)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걸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연한 논쟁만 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제도론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려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소모적 내전을 벌이자는 것”고 말했다.

안 대표 이어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

을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현명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제왕적 발상”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체를 무너뜨리고 앙당에 대해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국회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에 28개 법안을 공포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국회가 상시적으로 일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朴대통령, 순방중 거부권 행사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하면서 과연 순방 기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기류는, 법제처의 위원 여부 판단 등의 검토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며 박 대통령 귀국 전이라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전자 서명을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개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순방 기간 중에는 오는 31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그날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황 총리 주

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 요구안을 서명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낼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 여부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어 귀국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퇴임 정의화 “새정치 마중물 되겠다”

기자회견서 신당 창당 시사

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혔다.

정 의장의 ‘플랫폼’은 26일 공식 출범하는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이 될 전망이다. 이 단체 이사장은 정 의장이 맡는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인사 등과 더민주의 비문(비문재인) 인사들이 참여,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계복귀설이 나돌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정파를 뛰어넘어서는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이날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말알이 될 것”이라며 퇴임 후 독자 정치 세력화 행보를 공식화했다.

정 의장은 “4·13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하다. 바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조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갈등

국민의당 “환경부 장관 해임해야”

제조물 책임법 토론회… “가습기 피해 국정조사·특검 검토”

국민의당은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최한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시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도입(가피모)’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의 환경부에서 조사한다면 은폐 가능성성이 있다. 새 장관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축사에서 “법과 제도가 사람과 생명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도입(가피모)’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의 환경부에서 조사한다면 은폐 가능성성이 있다. 새 장관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이르면 이번주 비대위 출범

“지도부 공백 방지 안돼” 공감대… 주류·비주류 ‘오월동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의 3자 회동 이후 당 내부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는 분위기이다. 이르면 이번 주 지도부를 대행할

‘혁신비대위’를 출범하고 당이 정상궤도로 옮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25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주 시작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데려갈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면서 “여제 3자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조만간 혁신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간 전날 담판 결과물에 대해 당의 주류, 비주류인 진박(진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에서 대체로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한 의원은 “혁신비대위원장의 외부 영입이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로의 전환 등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면서 “계파 좌장 3명이 합의를 했으니 이를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비박계 의원도 “영향력이 있는 세력 간의 합의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당의 지도부 공백을 속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자간 합의에 대한 동의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정 민감한 현안인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개편하는 데 대해 당권 장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주류, 비주류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양 계파가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여권 공멸의 위기를 두고 손을 잡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오월동주’(吳越同舟·서로 적의를 품었지만 협력해야 하는 상황)라고 표현도 나온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회서 中 관광객 광주 유치 포럼

중국 관광객 유치로 광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제포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대형 여행사인 트래블젠, 카이사 그룹 등 7개 여행사 대표단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책임연구 위원이 ‘중국 관광시장 동향과 광주권 지속 가능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조우하이팅 트래블젠 부회장은 ‘광

주 지역경제 발전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 차지단체, 여행사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무등산 국립공원, 아시아 문화전당,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알려 중국인 관광객의 광주방문 50만명 시대를 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m² 건물 2005m² 감정가 19억5천8백만원 최저가 13억7천만원 1층수퍼 2~8층 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m² 건물 1,259m² 감정가 7억9천6백만원 최저가 5억5천8백만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 대지 1488m² 건물 2075m²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7억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m² 건물 2349m² 감정가 14억 최저가 6억2천7백만원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 대지 3293m² 건물 1495m² 감정가 17억5천만원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단층공장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m² 건물 1,261m² 감정가 12억1천6백 최저가 9억7천3백만원 혁학원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m² 건물152m² 감정가 1억8천6백만원 최저가 1억3천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m²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조망 감정가 9억1천5백만원 최저가 9억1천5백만원
- ★ 광산구 오산동 진곡산단내 대지 319m² 감정가 1억9천5백만원 최저가 1억9천5백만원 단독주택부지 기반시설완료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m² 건물 900m² 학교부지변경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전화문의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균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m² 매매 5억8천(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m² 웨딩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형 대지 416m² 건물 2,000m²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률 매매 27억원(용13억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m² 건물 2,760m² 객실36개 매매 589억(용29억 포함), 수익성 월8천 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m² 건물 1,088m²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m²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 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삼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m² 매매 40억 (보증금 2억3천, 월 2천7백)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 422m² 6층 모텔 객실 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용 4억8천 추가3억 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승덕고인근 대지 222m² 건물 400m² 원룸15개 안집 방3개 매매 6억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 5백
- ★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m²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 적합 4,000m² 주택 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직원모집 초보환경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